

# 어르신들에게 가장 무서운 질병 이제 공포가 아닌 일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치매 치매 친화적 사회로의 인식 변화를...

치매 위험 최소화와 치매 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 또는 캠페인 등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치매 친화적 사회로의 인식 개선을 위해 국가는  
장기적인 전략을 바탕으로 추진해야 하며, 각종 매체를 통한 다양한 홍보가 필요하다.

김기연(중앙대학교 심리학과 부교수)

## I. 들어가며

영화 <내 머릿속의 지우개>, <스틸 앨리스 Still Alice>, <소중한 사람 Ori Ume>, <내일의 기억 Memories of Tomorrow>, <노트북 Notebook> <해피엔딩 프로젝트 Still Mine>, <장수상회>, <로망>, 최근 인기리에 증명된 드라마 <눈이 부시게>와 <하나뿐인 내편>. 이들 영화와 드라마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바로 ‘치매’를 소재로 한 작품들이라는 점이다. 이중 필자는 노년심리학을 강의할 때 “스틸 앨리스 Still Alice”라는 책과 영화를 소개하며, 언어학자이자 대학교수인 주인공 앨리스가 치매에 걸린 후 보이는 내적, 외적 변화에 주목하라고 한다. 특히 주인공 앨리스의 알츠하이머병 협회 연설 장면인 “The Art of Losing(상실의 기술)”을 볼 때면 나도 모르게 감동을 받아 기립 박수를 치게 된다. 행여 잊을까, 연설문을 형광펜으로 한 줄 한 줄 마크해가며 “우스꽝스러워지는 건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병”이라는 말하는 앨리스. 학자이자 대학교수인 앨리스의 상황 때문인지, 치매 환자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한 줄리엔 무어라는 배우의 연기 때문인지 자연스럽게 감정이입을 하며 보게 되는 영화이다.

## II. 치매란

치매는 인지기능 상실로 인해 일상적인 활동의 수행이 어려워지는 대표적인 신경퇴행성 질환으로, 세계보건기구 WHO가 발표한 세계적으로 7번째로 높은 사망 원인이자 어르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병이다. 실제 2014년에 실시된 국내 치매 인식도 조사에서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1위는 치매<sup>43%</sup>로, 2위인 암<sup>33%</sup>을 크게 앞질렀으며, 특히 나이가 많아질수록 암 보다 치매를 더 두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III. 치매 현황

중앙치매센터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중 치매환자는 약 75만명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와 추정치매환자수를 토대로 가장 최근 발표된 추정치매유병률은 10.16% 이다. 우리나라 치매환자의 구성비율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여성과 고령 환자의 비율이 높고, 알츠하이머 치매가 다른 유형의 치매(혈관성 치매와 기타치매)에 비해 높은 비율인 73%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연령별 치매유병률은 2018년 현재 60대에서 6.9%, 70대에서 33.5%, 80대 이상에서 59.6%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병률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IV. 치매의 영향

치매는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 및 주변 사람들도 고통을 받는 참으로 안타까운 질병이다. 무엇보다 치매환자 가족은 정서적, 신체적, 경제적 부담 및 가족관계의 부정적 변화로 인해 고통 받게 된다. 사회적 손실도 큰데, 중앙치매센터가 2019년 3월 발간한 '대한민국 치매현황 2018' 보고서에 따르면 치매 환자 1인당 연간 관리비용은 약 2천 74만원으로 추정되며, 국가 치매관리비용은 약 14조 6천억원으로 GDP의 약 0.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 치매환자 증가 추이를 반영할 경우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020년 15조 2천억원으로 GDP의 약 1%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며, 이에 따라 치매는 더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대처해야하는 당면과제라 할 수 있다.

#### V. 우리나라 치매대응전략

우리나라는 2011년 8월에 제정된 '치매관리법'에 따라 5년마다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치매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를 발표하고 도입하였다. 즉, 개별 가정 차원이 아닌 국가 돌봄 차원으로 치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중앙치매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치매의 국가 돌봄을 수행하기 위해 현재 177개의 치매안심센터가 운영중에 있고, 2019년 말까지 전국 256개의 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한다.

2019년 2월 중앙치매센터에서 발간된 "국제 치매정책동향 2018"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국제기구나 G7 국가들에 뒤처지지 않는 치매대응전략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치매대응전략을 보면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한 7대 원칙(즉, 치매환자의 인권 옹호, 치매환자와 조호자의 역량 및 참여, 위험 감소 및 돌봄을 위한 증거기반 증거, 치매 대응을 위한 공중보건적 다각적 협력, 치매를 위한 보편적 건강보험 및 사회복지 보험, 형평성, 적절한 치매예방, 치료 및 돌봄)을 포함한 '국가치매관리계획'과 '치매국가책임제'를 수립하였으며, '치매현황 및 정책의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 개발 및 고도화 작업'을 지속해서 수행하고 있다.

#### VI. 치매 친화적 사회 인식 변화로의 방향

장기적인 측면에서 국제치매정책과 비교하여 볼 때 우리나라 치매관리정책에 적용될 수 있는 여러 착안점들 중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구조적 환경을 치매 친화적으로 조성하는 일이다. 예를 들어, 1995년 세계보건기구WHO는 국제알츠하이머병협회AD와 함께 9월 21일을 '치매 극복의 날'로 지정하고 가족과 사회의 치매환자 돌봄 문제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2011년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매년 9월 21일을 치매극복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시행하도록 법제화하였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는 이미 세 차례에 걸친 치매관리종합계획을 통해 치매 인식 개선과 함께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면, 치매극복 걷기대회, 치매안심마을 시범 사업 추진, 치매파트너 양성, 전국민 대상 치매교육 등이 그것이다.

#### VII.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위한 연구 제안

이처럼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및 인식 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은 고무적이거나 아직 갈 길은 멀다. 특히 국가 법령에서 치매에 대한 부정확한 혹은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나타나는 치매환자나 조호자의 권익 손상 문제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중앙치매센터의 '치매환자 관리 누락 방지를 위한 국가치매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몇 가지 사례가 언급되어 있는데, 질병자의 근로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산업 안전 보건 법 시행규칙 제 116조 제1항 제2호에서는 '마비성 치매'를 조현병과 같은 위치에 나열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본 시행규칙의 상위법인 법률 규정인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 제1항(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제한 사유)은 감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한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지만, 시행규칙에 개념 정의도 없이 ‘마비성 치매’를 포함하고 있으며, ‘마비성 치매’라는 용어가 자칫 감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 간주될 위험이 크다. 일본은 치매라는 명칭이 주는 부정적 인식 해소를 위해 2004년 부터 의학적으로 인지 장애라는 의미의 인지증(認知症)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 홍콩에서는 뇌퇴화증, 중국에서는 노년치매증, 대만에서는 실지증(失知症)이라고 한다. 따라서 정부의 공식적인 법령에서 사용된 부적절한 표현과 용어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실질적인 법률 개정 과정에는 상당한 물리적인 노력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 및 제도 개선은 치매 친화적 사회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치매관리법 제1조에 명시되었듯 치매환자와 조호자들이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 VIII. 나가며

나아가 치매 친화적 사회로의 인식 변화를 위해서 국가는 더욱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일본, 덴마크, 독일의 경우 초·중학교와 지역민을 대상으로 ‘치매 이해 교실’을 열어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노력한다. 이처럼, 치매 위험의 최소화화를 위하여 치매 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치매에 대한 국민의 인식 개선 활동 및 캠페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인식 개선 활동들은 장기적인 전략을 바탕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각종 매체를 통한 다양한 홍보가 필요하다. 통계청이 발표한 현재 대한민국 평균 기대수명은 약 82세이며, 우리가 평균 기대수명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 둘 중 한명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있다. 치매는 더 이상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로 쓰이는 남 일이 아닌, 옆집 할머니, 할아버지, 더 나아가 나의 일이 될 수 있는 질병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치매를 우리의 일상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이러한 인식 변화는 치매 친화적 사회를 만드는 첫 걸음일 것이다. 이를 위해 다학제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때이다.